

# “유부남 상사가 들이다”...여성 직장인 11%, ‘일방구애’ 경험

### 여성 11% ‘일방구애’ 당해...남성 3배 “스토킹 범죄 발전 위험...대책 필요” 직장인 2명 중 1명 “신고 무의미하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

여성 10명 중 1명은 직장 내 ‘일방적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남성(3.4%) 3배가 넘

는 수치다. 여성 비정규직은 14.7%가 이를 경험했는데, 정규직 남성(2.5) 5.8배에 달한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원치 않는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 84.9%는 스토킹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더 큰 문제는 직장 내 성범죄나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 위촉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 부조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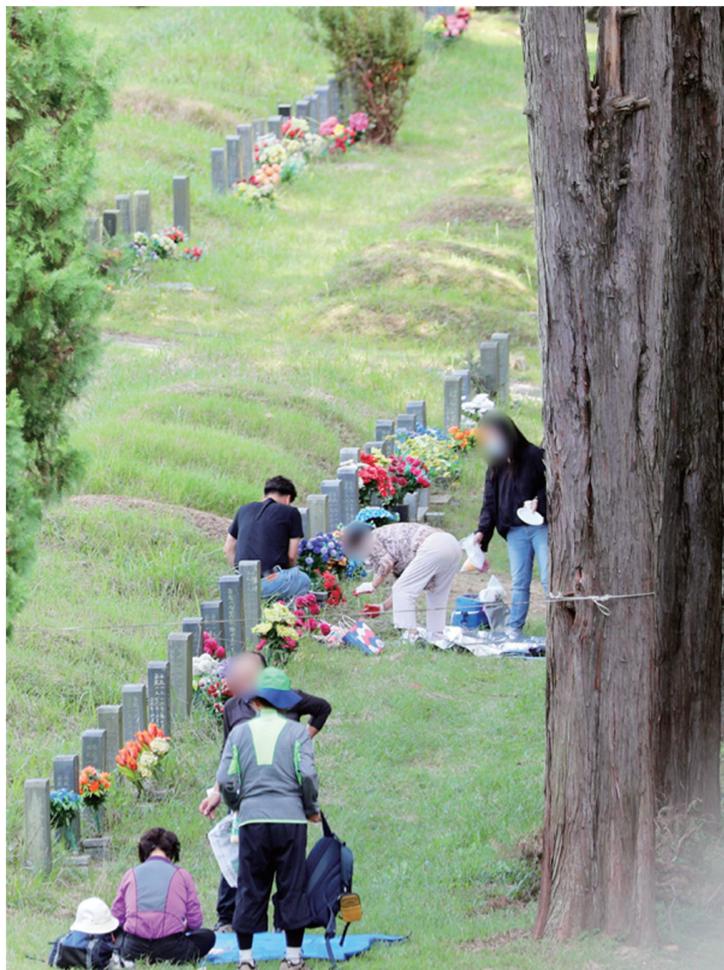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0명 중 7명(73.8%)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 64.1%는 ‘회사 보호 부재’를, 87.4%는 ‘국가 보호 부재’를 예상했는데, 각

각 남성보다 20%포인트 이상씩 높은 수치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 젠더폭력 전에는 구애 갑질 등 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 내 젠더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오류나기자



추석 앞두고 벌초 및 성묘

추석을 앞두고 10일 오전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여러 가족이 조상묘에 대한 벌초와 성묘를 하고 있다.

## 대전 40대 여교사, 절망 속 극단선택...“바뀌는게 없다”

### 마지막 학교 ‘공교육 멈춤의 날’

“아내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후 교사 집회에 대부분 참석했고 지난 4일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에도 병가를 냈습니다. 집회에 다니면서 뭔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학부모의 고소와 악성 민원에 따른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40대 여교사 A씨 남편 B씨의 말이다.

동료교사들은 A씨가 서이초 사태를 겪으면서 교권 개선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관리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것에 절망했다고 전하고 있다.

10일 대전 지역 교사들과 유족의 증언,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사례 모임에 직접 작성한 A씨의 글을 종합하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한 학교의 관리자들에게 크게 두 번 실망했다.

A씨가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한 전 근무지인 C초등학교 2019년 1학년 담임 당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지도에 한계를 느껴 교장에게 지도를 부탁하자 해당 학부모는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다. 교장과 교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A씨는 지도 차원일뿐 마음에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학부모에게 말했지만 같은 해 12월2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다.

교육청 장학사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교내학력폭력위원회는 해당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및 조연 처분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

분을 현직 교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주지 않은 것은 학부모 눈치만 보고 교사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의 전 근무지인 C초등학교에서 같이 근무한 D교장의 현 근무지인 E학교에는 교인의 발인일인 9일 근조 화환이 다수 배달됐고 교장의 당시 태도를 비난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또 한번은 마지막 근무지 E초등학교에서 발생한다.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한 A씨는 서울 집회에도 열심히 참여했고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도 병가를 내고 집회에 다녀왔다.

문제는 학교측의 대응이었다.

이 학교 교사 상당수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했고 학교측은 다음날인 5일 ‘동료장학’을 했다. 동료장학은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것을 교장과 교감이 직접 보는 것으로, 교사들은 보복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발인 당시 이 학교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의 메도장과 근조화환 등에 학교 관리자를 비난하는 글들을 볼 수 있었다.

해당 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대전시교

육청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공교육멈춤의날 집회 참여 교사들 대응에 오락가락하고 거기에 대전시교육청이 발을 맞추면서 연쇄적으로 일부 일선학교 관리자들까지 동참했기 때문이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대전시교육청은 교사 입장에서 단 한번도 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고 정당한 교원 휴가를 불법이라고 징계하겠다고 한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시교육청이 선심성 징계 철회 방침을 내놓아 교사들 시선이 꺾이지 않겠다”며 “시교육청이 교권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진정한 교권 회복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아동학대로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해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저 혼자 저의 가족들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남편은 왜 회사일을 하는데 회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 물음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보호가 아니라 회사의 비난을 제일 먼저 받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적에게 매일 보내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매우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였습니.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어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다시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사노조가 모집한 교권 침해 사례. A씨가 작성한 글이다. 대전교사노조 제공.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